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 영 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수평적 관계성에 기반한 인터뷰
초상화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지 현 영

수평적 관계성에 기반한 인터뷰
초상화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박 영 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지 현 영

인 준 서

지현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임 상 빈 

심사위원 박 영 근 

심사위원 조 병 왕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이 논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제작된 인터뷰 초상화 프로젝트 <Inner-view>를 중심으로 인간의 내면을 가시화하는 전개과정과 조형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나는 수평적 관계성에 기반한 상호작용을 토대로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논문의 구심점이 되는 <Inner-view> 프로젝트는 2020년 잡지 화보 속 진솔한 인터뷰를 접한 후, 타인과 독자의 사이를 매개하는 인터뷰의 힘에 영감을 받은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 경청은 인터뷰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깊은 내면 영역의 이야기들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체감하는 문제들을 주목하고 공감함으로서 시대상을 반영한다. 이를 통해 연대를 회복하고 개인과 사회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접착점이 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조형언어를 활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인물의 인상을 시각화시키는 시도를 보여준다. 나는 인터뷰 대화록 내용을 토대로 실크스 크린 판화를 제작했으며, 연상되는 상징성이 짙은 감각적 색채를 사용해 인물의 내면과 감정을 반영했다. 또한, 모자이크 그리드를 통해 감상자 스스로가 자신을 투영해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자 했다.

본 논문의 작품분석에서는 인터뷰 초상화의 모델이 된 인물들의 내면 이야기를 공유한다. 개인의 성장에 있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탐구하기 위해 동일한 인터뷰 모델과의 재회를 다루는 후속 작품을 제작했다. 군상을 다룬 작품에서는 회의와 희망이라는 양가적 감정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를 강조한다.

본 논문은 인터뷰 초상을 통한 회복과 연대가 개인의 미시적 차원을 넘

어 사회공동체의 거시적 차원에도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Inner-view>를 통해 개인의 내면 회복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의 연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망이 하나로 어우러지기를 바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Inner-view	3
1) 경청 - 내면의 창	4
2) 공감 - 시대의 거울	7
3) 연대 - 공동체의 고리	9
2. 조형언어를 통한 소통	10
1) 실크스크린 텍스트	11
2) 색(色) - 희로애락	13
3) 선(線) - 모자이크 그리드	15
3. 작품분석	18
1) <Inner-view> 프로젝트	18
2) 재회와 성장	23
3) 회의와 희망	25
III. 결론	29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Inner-view : Kozy House, 56.5×42.0cm, acrylic and colored pencil on paper, 2021

[작품 2] Inner-view portrait : Only Lovers Left Alive, 72.7×72.7 cm, oil on canvas, 2020

[작품 3] Inner-view Text : The Tree, silk screen on water colored panel, 2020 (detail)

[작품 4] Inner-view text : Only Lovers Left Alive, monotype silk screen on water colored panel, 2020 (detail)

[작품 5] Inner-view : Blossom (detail)

[작품 6] Greed (detail)

[작품 7] Midsommar (detail)

[작품 8] Inner-view : I AM (detail)

[작품 9] Inner-view : Kozy Home (detail)

[작품 10] <Inner-view : Youth> esquisse drawing (detail)

[작품 11] Inner-view : Youth (detail)

[작품 12] Inner-view Portrait : 희나리(The wet firewood), 72.7×72.7cm, oil on canvas, 2020

[작품 13] Inner-view Text : 희나리(The wet firewood), 72.7×72.7cm, charcoal and pencil on water colored paper, 2020

[작품 14] Inner-view : Geek in the red, 50×39.5cm, oil, spray and gel Stone on canvas, 2021

[작품 15] Inner-view : Youth, 116.8×91.0cm, spray and oil on canvas, 2022

[작품 16] Re-meet & Limit : E, 50×50cm, oil on panel, 2021

[작품 17] Re-meet & Limit : E Inner-view Script book, 22.5×13cm, 42page, 2021

[작품 18] Midsommar, 130.3×162.2cm, acrylic and watercolor on panel, 2022

[작품 19] 배산임수(背山臨水) : Fortunate Nexus, 130.3×162.2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22

참 고 도 판

[참고 도판 1] Luft & Ingham, Johari`s window, 1955

[참고 도판 2] Alice Neel, Andy Warhol, 1970, 152.4×101.6cm,
acrylic and oil on linen,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참고 도판 3] 2020년 <Inner-view> 프로젝트 공통 질문지

[참고 도판 4] <Re-meet & Limit> 단체전 설치전경, 2021

I. 서론

흔히 서로를 익히 알게 되면 첫인상에 관한 질문을 건네곤 한다. 상대방의 외면과 단편적인 모습들만 보았을 때와, 대화를 통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이후의 이미지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물음이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과 관계 속 교감을 통해 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세계를 알아가고, 그것을 그 사람만의 이미지로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의 동기가 된 것은 유명인들의 잡지 화보였다. 나는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누군가에게 관심이 생기면 잡지 화보 뒤에 이어지는 인터뷰를 찾아보곤 했다. 그 속에는 한 사람이 현재의 위치에 오기 위해 고생했던 과정이나, 최근의 고민, 앞으로의 목표 같은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있었다. 그 내용들이 나의 마음에 와 닿았을 때, 멀게만 느껴졌던 인물들이 친밀하게 재인식되는 경험을 했다.

나에게 있어 인터뷰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의 첫인상도 바꾸어주는 특별한 대화였다. 누군가의 진솔한 인터뷰를 통해 다른 이의 삶에 공감하고 위로받는 애뜻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졌다. 더 나아가, 내 주변에서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그때부터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수집하고, 그들에게서 느낀 상징적인 이미지를 담아 초상화를 그리는 <Inner-view>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Inner-view> 를 통해 나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구한다. 이어서 인터뷰의 내용을 토대로 초상화에 감정을 투영하는 나만의 표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의 1장에서는 <Inner-view> 가 가진 의미를 정의하고, 개인-시대

-사회 순으로 확장되어가는 내용 전개를 살펴본다. 2장에서는 인터뷰에서 느낀 비가시적인 인상을 시각화한 3가지 표현 방법을 서술한다. 3장에서는 인터뷰 방식이나 가치관이 변화해가는 과정에 따라 작품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통하여 수평적 관계성에 기반한 인터뷰 초상화 연구가 예술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엮는 바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밝히고, 앞으로 보완하고 해결해나갈 과제를 제시한다.

II. 본 론

1. Inner-view

과거 서양의 미술사조에서 인물 초상(肖像) 작품은 지배층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평범한 인물들이 모델로 등장하기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재현 위주였던 표현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초상화의 전개 과정에 있어 왜곡과 변형은 화가들이 모델의 내면을 반영하게끔 매개하는 효과가 있었다.¹⁾

나는 저마다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 속 고유한 스토리와 이미지를 초상의 외면에 투영시키고자 인터뷰라는 특수한 의사소통방식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 필요한 대화와 예술 행위의 전반을 <Inner-view> [이너-뷰]라고 명명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델과의 관계형성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수동적인 모사 대상의 역할을 수행해왔던 모델의 지위를 작가로서의 나와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Inner-view> 는 인터뷰(interview)²⁾의 발음과 의도적으로 유사하게 지은 고유명사다. ‘interview’ 는 ‘...사이의, 상호간의’ 라는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 ‘inter-’³⁾와 ‘~를 세심히 살피며 보다.’ 라는 의미의 ‘view’⁴⁾가 합쳐진 단어다. 나는 ‘inter’ 의 자리에 형용사 ‘내부의, 중

1) 유형주, 김형기. 「미디어아트에서의 다양한 변형 초상 재해석을 통한 내적 본질 연구: 본인의 작품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제23호, 2023, pp.138-139.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뷰 :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나 집단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76485&searchKeywordTo=3

3) 네이버 영어사전 - ‘inter-’ ,
<https://en.dict.naver.com/#/entry/enko/1f20c0d5eb19413ba5fb3fb425d996a5>

4) 네이버 영어사전 - ‘view’ ,
<https://en.dict.naver.com/#/entry/enko/0fe3e68d387342c9a9546420da456f13>

심부 가까이’ 라는 뜻의 ‘inner-’⁵⁾를 덧붙여 ‘상호간의 인터뷰를 통해 내면을 세심히 살펴봄.’ 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었다.

나는 이너뷰⁶⁾가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도출할 수 있는 내면의 창이자, 개인의 고백에 사회 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시대의 거울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 전개 과정을 ‘경청 · 공감 · 연대’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청 - 내면의 창

이너뷰는 대화를 통해 겉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인물의 내면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대화에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편하게 내놓을 만큼의 충분한 관계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대상을 친구, 동료, 지인 등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했다. 이미 그들과 나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친밀도와 관계성에 기대어 더욱 자연스럽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너뷰이(inner-viewee)⁷⁾에게 발언의 주도권을 넘기고, 질문자가 아닌 경청자로서의 이너뷰어(inner-viewer)⁸⁾가 되었다. 이너뷰를 하는 동안은 메모를 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다른 행동을 최대한 지양했다.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고, 대화에 온전히 집중하며 교감하고자 한 태도는 이너뷰이의 마음을 열어 숨겨진 내면을 볼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너뷰 시간과 만남의 횟수는 만나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데, [작품 1]은

5) 네이버 영어사전 - ‘inner’ ,

<https://en.dict.naver.com/#/entry/enko/0374970affd74e359d4932621bdb6e78>

6) ‘interview’의 외래어표기가 ‘인터뷰’인 것을 차용하여 편의상 <Inner-view>를 ‘이너뷰’로 통칭한다.

7) ‘인터뷰 대상자(interviewee)’의 <Inner-view>식 표기.

8) ‘인터뷰 진행자(interviewer)’의 <Inner-view>식 표기.

나와 수차례에 걸쳐 가장 긴 대화를 나눈 이너뷰이 E와 인터뷰 공간이었던 그의 집을 함께 그린 것이다. E와 처음 이너뷰를 진행할 때는 자기소개, 평소 좋아하는 것, 요즘의 근황같이 대답하기 어렵지 않은 것들을 주로 묻고 답했다. E와의 만남이 수차례 거듭되는 동안, 대화가 점차 깊어져 삶의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대한 주제까지도 나눌 수 있었다. 그때 E는 나



[작품 1] Inner-view : Kozy House, 56.5 × 42.0cm, acrylic and colored pencil on paper, 2021

에게 자신이 지니고 있던 가정폭력 트라우마 (trauma)에 대해 알려 주었다.

나는 이와 같은 결과를 Luft & Ingham (1955)가 고안한 ‘조하리의 창(Johari’s window)’ 모델⁹⁾과 앨리스 널(Alice Neel, 1900-1984)의 작품 <앤디 워홀 (Andy Warhol)>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조하리의 창(참고 도판 1)은 ‘자신이 알고/모르고 있는 것’과 ‘남도 알고/모르고 있는 것’을 척도로 하여 인간의 내면심리를 4분면을 가진 창문형 구조로 설명한 개념이다.

E와 나는 친밀한 관계였기에 이전부터 공유된 열린-공적영역(Open-Public area)이 있었다. 그러나 E의 고백은 그동안 알지 못했다가, 이너뷰를 통해 새로이 알게 된 비밀-사적 영역(Hidden-Private)의 이야기다. 예를 들어, 화면의 우측 하단에는 E가 가장 좋아하는 서적인 조르주 피렉의 『공간의 종류들』 본문이 인용되어 있다. E는 이 책을 통해 당시의 경험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 생각했던 집’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9) 박수경, 「조하리의 창(johari’s window)에 나타난 통합체육 내 체육교사의 지적장애학생 지도 어려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 55권, 2016, pp.677-688.

	나는 알고 있음 (KNOWN TO SELF)	나도 모르고 있음 (UNKNOWN TO SELF)
남도 알고 있음 (KNOWN TO OTHERS)	1사분면 QUADRANT ONE 열린 영역 (Open area) 공적 영역 (Public area)	2사분면 QUADRANT TWO 눈먼 영역 (Blind area) 모르는 영역 (Unaware area)
남도 모르고 있음 (UNKNOWN TO OTHERS)	3사분면 QUADRANT THREE 비밀 영역 (Hidden area) 사적 영역 (Private area)	4사분면 QUADRANT FOUR 미지 영역 (Unknown area) 잠재 영역 (Potential area)

[참고 도판 1] Luft & Ingham, Johari`s window, 1955¹⁰⁾



[참고 도판 2] Alice Neel, Andy Warhol, 1970, 152.4×101.6cm,
acrylic and oil on linen,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앨리스 널도 주로 자신의 지인들을 모델로 삼았다. 널은 그림을 그릴 때 모델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무의식중에 취하는 편안한 자세나 표정을 통해 인물을 다층적으로 이해했다. [참고 도판 2]는 널의 지인 중 하나

10) Luft J. and Ingham H., "The Johari Window: a graphic model for interpersonal relations (1955)", *University of California Western Training Lab*, 위의 책, 재인용.

인 앤디 워홀의 초상이다. 화면 속 워홀은 반라의 상태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차분히 앉아있다. 평소 닐과 워홀 사이에 형성되어있던 관계성, 대화를 통해 안정된 분위기가 모델 스스로 비밀 영역을 노출해 열린 영역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닐은 그의 드러난 복부의 큰 흉터와 보호대를 그대로 묘사했다. 닐은 워홀을 시대의 추앙을 받는 예술가의 모습 보다는 상처와 고통을 가진 평범한 한 인간으로 표현했다.¹¹⁾

닐의 작품과 이너뷰는 인물의 내면을 담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느껴진 이미지를 초상을 통해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편, 이너뷰는 인터뷰라는 특수한 목적성을 띤 대화 형식을 통해 대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경청(attentive listening)은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들며, 진정한 대화를 가능케 한다.¹²⁾ 나의 작품에 있어 경청은 세심한 관심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더 깊은 내면세계의 이야기들을 도출해낼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수집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공감 - 시대의 거울

이너뷰는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에, 자연스럽게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또래의 이너뷰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회로부터 느끼는 압박과 우울, 무력감이 큰 청년 세대를 향한 공감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작품 2]의 이너뷰이 G는 당시 20대 중반으로, 사랑하던 사람이 세상을

11) 김수정, 「인물상을 중심으로 본 앨리스 닐(Alice Neel)의 휴머니스트적 태도」, 이화여자 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p.65.

12) “대화는 그 어원부터 상호작용의 성격을 가진다. ‘대화’ 라는 의미를 지닌 dialogue의 어원을 분석해보면, ‘사이, 전적으로, 철저하게’ 라는 의미를 지닌 dia와 ‘무엇에 몰두해 한 사람’ 이란 뜻의 logue가 합쳐진 조합어이다.” 현상규, 「경청에 대한 기독교심리학적 고찰」, 『목회와 상담』, 제18호, 2012, p.215.



[작품 2] Inner-view portrait : Only Lovers Left Alive, 72.7×72.7cm, oil on canvas, 2020

떠난 뒤 찾아온 상실감과 우울을 이야기해주었다. G는 슬픔에 잠겨있던 기간에 대해 ‘(진로나 미래를 생각하면) 더 바쁘고 밀도 있게 살아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기’ 라 언급하며 자책감을 고백했다.¹³⁾

나는 G처럼 상처 속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것의 원인을 서로에 대한 위로와 공감이 결여된 현대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았다. ‘나와 무관한 남의 일’ 이라는

감정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개인은 쉽게 무력감과 압박에 노출된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개인의 불행과 고통은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위로하고 극복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고 보았다. 루터에 따르면 인간적인 연약함을 공유하고 서로 감싸려는 노력을 하는 것에서 공감과 포용이 시작된다.¹⁴⁾ 나는 이너뷰이들이 나누어준 각자의 사연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과의 이너뷰를 통해 쉽사리 드러내지 못했던 사연들에 귀를 기울이고, 시대의 거울이 되어 공감이 필요한 사회의 모습을 비추어보고자 했다.

13) G와의 Inner-view 중 대화록 일부 인용 : “사람이 원래, 있다가 없으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 심지어 내 의지로 그런 것도 아니라 갑자기 없어져버렸잖아. 그런데 그 없어진 게 내 탓 같아. 내 스스로에게 너무 슬펐어. ... 돌이켜보면, ‘나 되게 가만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침잠해 있었다는 느낌. 내가 바뀌고 변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 2020.

14) 한유나, 「위로의 연대 : 이미지로 보는 16세기 독일 루터파 공동체의 이상」, 『연세사학연구회 學林』, 제49호, 2022, p.52.

3) 연대 - 공동체의 고리

사전적의미로 ‘연대’¹⁵⁾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 또는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 연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 자문해보게 된다. 나는 이너뷰를 통해 개인의 내면에 내재된 상처들이 결국 사회의 압력과 불합리함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 벅찬 감정들에 고립된 개인들은 점차 소통할 곳을 잃어간다. 이처럼 단절된 공동체는 개인과 개인을 다시 연결하는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¹⁶⁾

니콜라 부리오(Nicolas Bourriaud, 1965년생)는 자본주의 사회 속 구성원들의 소통 부재와 소외, 단절된 관계를 지적했다. 부리오는 자신의 이론 ‘관계 미학(Relational Aesthetics)’¹⁷⁾에서 예술작품을 통해 구축되는 상호 인간관계(inter-human relation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술로서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사회성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¹⁸⁾ 관계 미학의 관점에서 예술가의 역할은 사람들의 삶과 유리되지 않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며, 예술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소규모(micro) 유토피아를 만들어 지금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다.¹⁹⁾

내가 꿈꾸는 이상적 공동체는 개인과 개인의 유대감이 회복되고, 사회의

15) 네이버 국어사전 - ‘연대하다(連帶하다)’ ,
<https://en.dict.naver.com/#/entry/enko/1f20c0d5eb19413ba5fb3fb425d996a5>

16) 광연선, 『번아웃 세대』, 스테이츠, 2022, p.8.

17) 관계 미학(Relational Aesthetics) : 프랑스의 전시기획자이자 비평가인 니콜라부리오가 1996년 파리 보르도 현대미술관에서 기획한 《트래픽 Traffic》 전시에서 처음 사용한 비평 용어. 1998년 동명의 비평서로 출판되었고, 이후 2002년 샌프란시스코예술대학에서 열린 《터치: 1990년대에서 지금까지의 관계예술》 전시에서 관계미학과 관계예술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며 점차 예술계에 수용되었다. (소나영, 장민한, 「동시대 ‘관계 예술’의 새로운 유형과 가치 - 니콜라 부리오의 ‘확장된 관계’ 개념을 중심으로」, 『유럽문화예술학회』, 제13호, 2022, p.142.)

18) 위의 책, pp.142-145.

19) 김중기, 「니콜라 부리오의 관계 미학과 관계 미술 - 이해와 비판을 위한 시도」, 『한국미학회』, 제81호, 2015, pp.155-193.

선순환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접촉점으로서의 공동체다. 나는 흩어지고 끊어져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한 데 모으는 일련의 작품들을 만듦으로서 세상을 엮는 바늘과 같은 작가가 되고자 했다. 이너뷰는 일차적으로 나(이너뷰어)와 타인(이너뷰이)을 연결한다. 그리고 그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통해 또 다른 타인과 사회 구성원들을 만난다. 이를 통해 작품과 감상자, 나와 타인, 나아가 개인과 사회 간의 벽을 허물어 연대를 이룰 수 있는 공유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3. 조형언어를 통한 소통

이너뷰의 목표는 이너뷰이와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대화를 통해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너뷰의 내용을 토대로 초상과 인터뷰 텍스트가 1:1로 대응하거나, 하나의 화면에 조화를 이룬 작품들을 제작했다. 초상에서는 외면의 인상(人相)²⁰⁾에 이너뷰이의 내면적 인상(印象)²¹⁾을 덧입혔다. 이때, 내가 느낀 대상의 추상적인 이미지를 타인에게도 공유하기 위해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시각적 소통방법이 필요해졌다.

문자언어가 가지는 기호의 상징체계는 인간의 내면을 표출하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며,²²⁾ 조형언어는 시각화와 표현 양식을 고루 수반한다.²³⁾ 나는 그 중에서도 소통을 매개하는 시각언어로서의 텍스트와 조형언어에 주목해 문자, 색, 선을 3가지 방향으로 사용했다. 첫째, 실크스크린 판화

20) 인상(人相) : 사람 얼굴의 생김새. 또는 그 얼굴의 근육이나 눈살 따위. (표준국어대사전)

21) 인상(印象) : 어떤 대상에 대하여 마음속에 새겨지는 느낌. (표준국어대사전)

22) 탁형수, 「시각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형언어의 지도방안탐색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제25호, 2011, p.105.

23) 정훈동, 「조형언어적 타입의 공간적 이미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제9호, 2009, p.105.

기법을 사용해 이미지로서의 텍스트를 만들고자 했다. 둘째, 칸딘스키의 ‘감각적 색채’에 기초하여 희로애락(喜怒哀樂)의 감정표현을 전달하려 했다. 셋째, 모자이크 그리드를 통해 제3자의 자아 투영을 시도하고자 했다. 이러한 표현방법의 구체적인 전개는 다음과 같다.

1) 실크스크린 텍스트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찍어낸 텍스트를 화면에 직접 제시함으로써 감상자가 독자가 되어 대화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텍스트 내용은 인터뷰 과정에서 녹취한 음성을 대화록 형식으로 정리한 것으로, 그 중 인물의 내면이 잘 드러난 문장을 선별해 실크스크린 판화 기법으로 통과시켜 찍어냈다. 조형적 타이포그래피는 언어적 기능 외에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힘이 있어²⁴⁾ 그 자체로 초상과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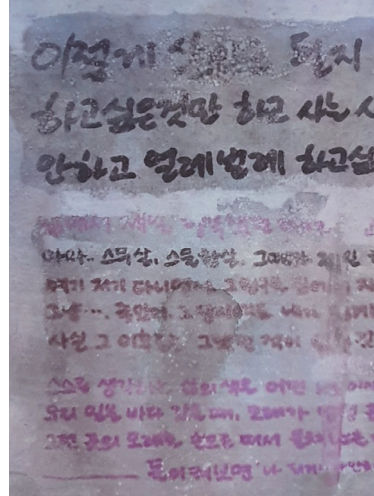
나는 잉킹(inking)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실크스크린 잉크 대신 유화물감과 수성크레용을 사용했다. [작품 8]은 감광기를 사용한 전통적인 제판 방식을 따르되, 다양한 색상의 유화물감으로 찍어낸 것이다. 유화물감을 사용하면 실크스크린 잉크보다 샤프의 텍스처가 덜 드러나 부드러운 혼색 효과를 내기에 용이하다. [작품 9]는 감광하지 않은 실크스크린에 수성크레용을 사용해 수기로 적은 텍스트를 익스텐더 베이스(extender base)²⁵⁾로 찍어낸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수성크레용이 익스텐더 베이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스퀴지를 누르는 손의 압력과 용액의 양에 따라 글자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물 자국 같은 잔상을 연출할 수 있어 글자 주변이 젖어있는 느낌을 낼 수 있다.

24) 위의 책, p.105.

25) 익스텐더 베이스(extender base) : 실크스크린 작업 시 물감의 농도를 조절하고 투명도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보조제. 주로 종이용 아크릴 실크스크린 잉크와 함께 사용된다.



[작품 3] Inner-view Text : The Tree,
silk screen on water colored panel,
2020 (detail)



[작품 4] Inner-view text : Only Lovers
Left Alive, monotype silk screen on
water colored panel, 2020 (detail)

이너뷰이의 대화에서 느껴진 이미지에 따라 활자체에도 차이를 두었다. 글꼴에 따라 가독성과 친숙함의 정도가 달라지며, 이러한 시각적 특성은 보는 사람으로 다른 감정과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작품 3]은 세리프(serif)²⁷⁾가 있어 날카롭고 정돈된 느낌이 있는 바탕체를 사용해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오랜 시간 목표에 매진해온 울곧은 인물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작품 4]는 [작품 2]과 대응하는 텍스트로, 누군가의 편지나 일기장 같은 사적인 느낌을 주고자 흘리듯이 쓴 느낌의 자필 수기로 적었다. 실크스크린을 활용해 이너뷰 텍스트를 찍어내는 방법은 일반 언어를 시각 언어적 표현으로 치환하고자 한 시도이다. 이를 통해 대화 내용의 맥락과 대상의 이미지를 감상자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시각화했다.

26) 가야금, 현주석, 「한글 글꼴의 세리프 및 네모틀 여부에 따른 친숙성과 선호도」, 『한국 감성과학회』, 제24호, 2021, pp.30-31.

27) 세리프(serif) : 활자의 빠침. 붓이나 펜을 사용해 문자를 쓸 때 처음으로 펜이 종이와 닿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펜이 종이에서 떨어진 부분에 잉크가 모이게 되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글꼴의 장식 형태. 수기로 글을 적었던 언어들에서 역사적으로 꾸준히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교적 친숙한 글꼴로 인식되고 있다. (위의 책, 30p.)

2) 색(色) - 희로애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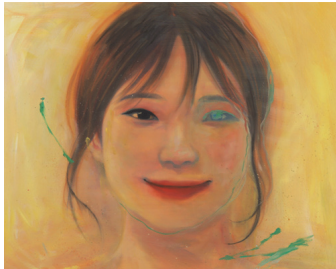
초상의 모델이 된 이너뷰이와의 대화에서 느낀 주된 감정을 크게 희·로·애·락 4가지로 분류한 뒤,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표현했다. 이러한 분류는 색채를 내적 필연성에 근거한 외형적인 표현으로 보는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의 ‘감각적 색채’²⁸⁾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색채를 지각한 인간은 심리적 연상이나 감정의 동요를 느낀다고 보고, 색채가 내면세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장했다.²⁹⁾

실제로 이너뷰를 진행할 때 ‘당신의 삶을 색과 질감으로 나타낸다면?’이라는 공통 질문을 건넸고, 많은 이너뷰이들이 이 질문에서 유독 긴 생각에 잠겼다. 답변으로 특정 색상이나 질감을 말한 뒤 자연스럽게 그 이유와 관련된 더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색은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전형화 된 감정적 호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렇게 발전된 색채의 심리적 영향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보편적인 공유가 가능한 상징성을 띤 시각언어가 된다. 나는 이너뷰이와 대화할 때마다 그 사람을 연상시키는 특정한 색이나 질감이 떠오르는 경험을 했다. 화면에 쓰인 모든 색에 의도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무의식 중 선택한 색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상징성이 이너뷰이의 이미지와도 맥락이 같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상이 느낀 감정과, 그것을 접한 나의 감정을 색채를 통해 공유하고자 했다.

28) “칸딘스키는 예술가란 무언가를 전달해 인간의 내면을 발전시키고 순화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내적 필연성의 의무를 가진 자라고 보았다. 모든 색채는 화면에 즉각적, 본질적인 변화를 주며, 사용된 색채의 내적변화는 풍부한 힘을 내포한다.”, 서혜옥, 「칸딘스키의 색채론 : 내적 필연성의 심리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제23호, 2009, p.78.

29) 조경민, 차영순, 「현대미술에서의 감성적 조형언어로서의 색채와 물질 연구」, 『한국감성과학회』, 제22호, 2019, p.85.



(1) 희(喜)

[작품 5] Inner-view : Blossom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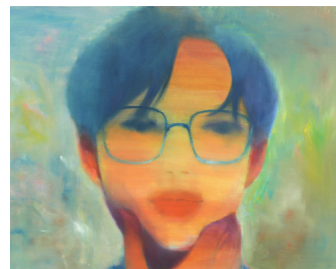
(2) 로(怒)

[작품 6] Greed (detail)



(3) 애(哀)

[작품 7] Midsommar (detail)



(4) 락(樂)

[작품 8] Inner-view : I AM (detail)

(1) 희(喜)의 감정 : 노랑(Yellow)

[작품 5]의 이너뷰의 P는 본인의 삶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었다고 서술하며, 이타적인 삶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노란색은 유채색 중 가장 밝은 색으로 기쁨이나 웃음, 명량의 이미지를 가진다. 특히, 정서적으로 안정될수록 노란색을 보았을 때 유쾌한 이미지로 인식한다.³⁰⁾ 이처럼 인물의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자 할 때 노란색을 사용했다.

(2) 로(怒)의 감정 : 빨강(Red)

[작품 6]은 나의 자화상으로, 이너뷰를 시작하는데 영향을 준 작품이다. 본인이 소화할 수 없는 것을 탐닉하려드는 나 자신에 대한 자조와 분노를

30) 김정애, 「정서적 건강상태가 색채감정에 미치는 영향」, 가천의과학대학교 보건학과 박사 학위논문, 2010, p.40.

적의에 찬 격한 감정상태일 때 나타나는 색이자, 마음의 에너지를 불태워 버리는 색인 붉은색에 비유했다.³¹⁾

(3) 애(哀)의 감정 : 파랑(Blue)

파란색은 평화와 희망을 연상시키는 색³²⁾이지만, 동시에 우울증을 의미하는 동음이의어(the blues)이기도해 이중성이 큰 색이라고 보았다. [작품 8]은 [작품 18]의 부분으로, 타인의 고통에 함께 오염하며 울지만, 상대가 괴로운 이유까지는 알지 못했던 영화 속 인물을 푸른 색감으로 그렸다.

(4) 락(樂)의 감정 : 초록(Green)

초록은 가시광선의 가운데 위치하는 색으로,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면의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색이다.³³⁾ [작품 8]의 이너뷰이 K는 자아와 자존감에 대해 말하기를 즐겼다. 자신의 내면세계에 푹 빠져들어 몰입한 모습을 다양한 색상과 어울리면서도 뒤덮이지 않는 초록색으로 표현했다.

3) 선(線) - 모자이크 그리드

인물의 인상 위에 격자모양의 그리드를 의도적으로 덮는다. 디자인에서 그리드시스템(grid system)은 화면을 규칙적으로 구성하는 격자 형태의 구조를 말하는 개념이다. 각 격자의 셀은 일정한 비례를 가진 수직, 수평의 조직망으로서 조형 요소를 배치하고 정렬하는 데 도움을 준다.³⁴⁾ 그리

31) 27) 위의 책, p.7.

32) 김경애, 「파란색의 연상성과 SF 영화에서 미래지향적 스토리의 연계성」,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회』, 제45호, 2013, pp.152-161.

33) 파버 비렌(Faber Biren)저, 김진한 역, 『색채의 영향』, 시공사, 1996, p.192. 재인용.

34) 강화영, 「그리드시스템을 활용한 한글가구디자인의 구조적 특성」,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제41호, 2013, p.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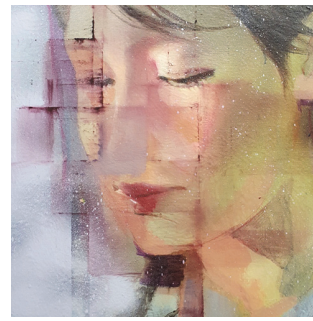
드를 활용해 인상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음으로서 대상이 본래 지니고 있던 개성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 감상자의 몰입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작품 9] Inner-view :
Kozy House (detail)



[작품 10] <Youth>
esquisse drawing (detail)



[작품 11] Inner-view :
Youth (detail)

[작품 9]는 본론 1-1에서 언급한 이너뷰이 E의 집과 작업실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 1]의 인상 부분을 확대한 것이고, [작품 10]은 [작품 11]의 에스키스 드로잉이다. 나는 인물의 초상을 먼저 완성한 뒤, 인상 주변에 자를 대고 수직, 수평의 그리드 라인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내 작품에서 그리드는 단순히 밑그림을 위한 비례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설계임을 알 수 있다.

그어진 그리드 라인을 드라이포인트 니들³⁵⁾로 섬세하게 따라 그으면 니들이 연필이자 조각도의 역할을 해 쌓여있던 물감의 색상 층이 드러나고 선은 더욱 선명해진다. 나는 그 위에 다시 채색을 덧입힌 뒤, 선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리드 사이를 채워 면을 만들어 모자이크가 연상되도록 했다.

모자이크(mosaic)³⁶⁾는 작은 조각 하나 하나가 연결되어 새로운 전체를

35) 드라이포인트 니들(dry point needle) : 주로 동판이나 아크릴판 위에 직접적인 음각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송곳 형태의 판화 도구. 판면을 직접 에리하고 강하게 긁어 그릴 수 있다.

36) 모자이크(mosaic) : 여러 가지 색상의 돌, 유리조각, 도판 등을 사용하여 이것을 평면에

구성한다. 이너뷰의 그리드 역시 여러 개의 격자가 어우러져 있을 때 모호한 익명성이라는 의미가 생긴다. 그리드를 통해 초상에 그려진 이너뷰이를 ‘나와는 관련 없는 남’, ‘타인’ 으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 자신, 혹은 연상되는 또 다른 누군가를 투영해볼 수 있길 바란다.

늘어놓고 모르타르나 석회, 시멘트 등으로 접착시켜 무늬나 그림 모양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건축 등에서는 바닥이나 벽 등을 장식하고 공예품에서는 표면의 회화효과나 장식성을 나타내는 미술방식. (김예원, 「회화표현에 있어서의 오브제 활용방법이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25.)

3. 작품 분석

1) <Inner-view> 프로젝트

2020년도에 처음으로 진행한 <Inner-view> 프로젝트는 나와 특정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약 20명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인터뷰를 수집했던 초상화 연작이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눈으로 볼 수 없는 인물의 인상(印象)을 초상화로 가시화하고자 했다. [참고 도판 3]³⁷⁾는 사전에 준비했던 10가지 공통 질문으로, 최대한 비가시적인 내용들로 구성했다.

- | | |
|----|--|
| 1 | 본인을 대표할 수 있는 애칭이나 별명이 있다면? |
| 2 | 자신의 삶을 색이나 질감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나요? |
| 3 | 2의 답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일화가 있다면 함께 소개해주세요. |
| 4 | 자신에게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
| 5 | 현재를 살아가며 해결이 되지 않는 고민 혹은 위로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
| 6 | 가장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은 어떤 사람인가요? |
| 7 | 자신에게 있어 '현실' 과 '꿈'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
| 8 | 이상적인 자신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자신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 9 | 자신이 바라는 이상을 현실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 10 | 1~9의 응답 외에 추가로 더 떠오르거나 이야기 하고 싶은 내용이 있나요? |

[참고 도판 3] 2020년 <Inner-view> 프로젝트 공통 질문지

[작품 12],[작품 13]를 제작한 초기작은 텍스트를 직접 제시해 초상화와 1:1로 병치했다. 그 이후 [작품 14],[작품 15]에서는 대화에서 느낀 느낌을 색채와 그리드를 활용해 한 화면에 표현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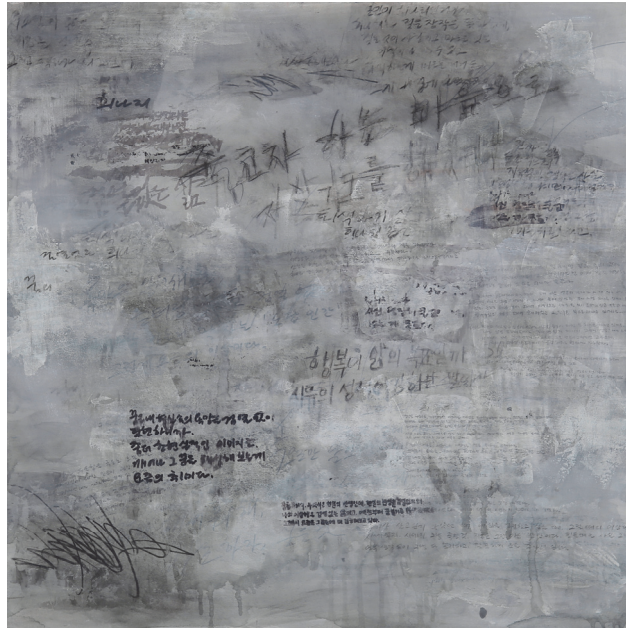
37) 나는 이 질문들을 통해 낯선 질문을 받았을 때의 즉흥적이고 우연한 반응을 기대했기에 인터뷰이가 별도로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전에 질문지를 공유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답변할 시간이 필요해보일 경우, 다른 일상적 이야기를 나누며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작품 12] Inner-view Portrait : 희나리(The wet firewood), 72.7×
72.7cm, oil on canvas, 2020

[작품 12]의 모델은 [작품 1]의 모델과 동일한 이너뷰이 E이다. 앞서 언급했듯 E가 토로해준 내면의 비밀 영역은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에 대한 감정이었다. E는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 내 고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길 바랐다.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고 공개함으로서 자신과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다. 나는 화면 밖 정면을 직시하는 시선을 연출해 E의 의지를 나타냈다.

상처 입은 고발자로서의 E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홍채와 입가의 채도를 과하게 강조했고, 피부에 울혈이 맺힌 것처럼 붉은색과 푸른색을 번갈아가며 올려 울긋불긋하게 표현했다. 이때 마치 살갓을 덧댄다는 느낌으로 물감을 덕지덕지 얹듯 발랐다. 인물과 대비되는 검은 배경을 통해 어두운 환경에서의 고립감과 고통을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 13] Inner-view Text : 희나리(The wet firewood), 72.7×
72.7cm, charcoal and pencil on water colored paper, 2020

[작품 13]의 내면 영역이 가장 잘 드러난 이너뷰 대화록을 자필과 실크스크린 기법을 섞어 표현했다. E는 아버지의 애창곡으로 함께 즐겨 불렀던 ‘희나리’ 38)가 마치 자신 같다고 했다. 나는 그런 E에게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애달픔을 동시에 느꼈다.

탁한 젓빛의 수채 물감과 젓소를 겹쳐 바른 화면 위에 ‘채 마르지 아니한 장작’이라는 의미의 희나리와 연관 지어 젓은 나뭇가지를 직접 태워 만든 목탄으로 글씨를 썼다. 수채 크레용으로 적은 텍스트는 익스텐더 베이스로 농도를 묽게 조절해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찍어냈다. 이를 통해 인물 내면에 쌓여있는 마음의 소리들을 시각화하고자 했다.

38) 구창모, <희나리> 가사 일부 인용 : “남이 아닌 남이 되어 버린 지금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은 퇴색하기 싫어하는 희나리 같소. 내게 무슨 마음의 병 있는 것처럼 느낄 만큼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그대 외려 나를 점점 믿지 못하고 웬지 나를 그런 쪽에 가깝게 했소.” (1985년 6월 10일 발표.)



[작품 14] Inner-view : Geek in the red, 50×39.5cm, oil, spray
and gel Stone on canvas, 2021

[작품 14]의 이너뷰이 Y는 ‘이상적인 딸’의 완벽한 모습을 원했던 어머니 곁에서 느낀 자아성장과 충돌을 고백했다. 『데미안』 39)에 등장하는 알의 형상 안에 인물을 담고자 폭이 좁고 긴 타원형 캔버스를 사용했다. 지지체 전면에 거친 젤 스톤을 발라 굳혀 내적 충돌과 반항심을 표현했다. Y의 감정은 매우 복잡적이었기에 희로애락의 모든 색이 한데 어우러지도록 했다. 시선을 피한 인물의 인상 위에形形色색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 별모양을 마스크처럼 덮어 특별해지고자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던 Y의 모습을 암시했다.

39)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헤르만 헤세(Herman Hesse)저, 이순학 역, 『데미안』, 미르북컴퍼니, 2023, p.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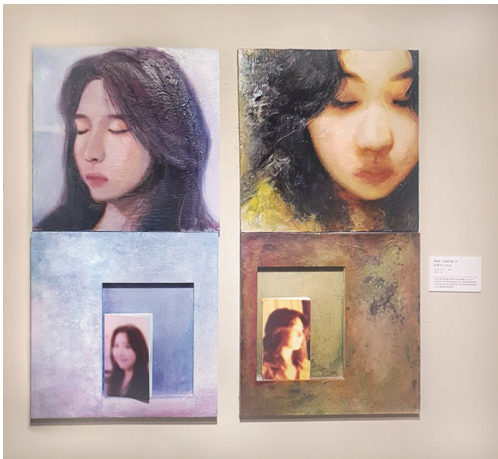
[작품 15] Inner-view : Youth, 116.8×91.0cm, spray and oil on canvas, 2022

나에게 있어 [작품 15]의 이너뷰이 T는 미래의 꿈을 위해 어렵고 힘들 때도 많았지만, 주어진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평범하고도 찬란한 삶과 무척 닮아 보였다. 인물의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노란색-초록색을 사용했고, 화면 전체에 감도는 보랏빛⁴⁰⁾으로 ‘미래의 꿈’을 나타냈다. 수직수평의 그리드를 적용해 인물과 배경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했는데, 이를 통해 감상자가 인물과 그를 둘러싼 환경 모두에 다양한 상상과 감정을 투영해볼 수 있기를 원했다.

40) 보라색은 신비, 환상, 희귀함을 상징한다. “보라는 빨강의 강인함과 파랑의 불안함을 동시에 내포하는 양면성을 가진 신비롭고 절묘한 중성색으로 시인성·주목성이 낮다.” 나는 보라색의 특성이 아프고도 아름다운 청춘을 잘 나타낸다고 느꼈다. (각주 29), 위의 책, p.14.)

2) 재회와 성장

나는 이너뷰의 경험이 이너뷰어에게 있어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공유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바랐다. 그래서 첫 번째 대화 수집으로부터 1년 뒤, 이너뷰이 개인의 내적 성장과 삶의 변화를 중심으로 재회의 이너뷰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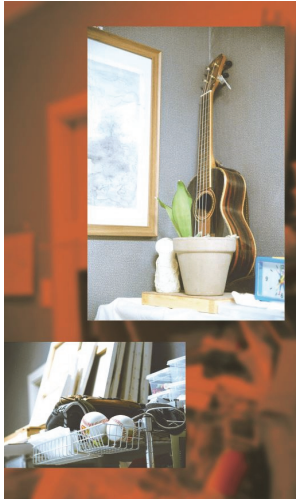
[참고 도판 4] <Re-meet & Limit>
단체전 설치전경, 2021



[작품 16] Re-meet & Limit : E,
50×50cm, oil on panel, 2021

2명의 이너뷰어와 재회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한계(Limit)와의 재회(Re-meet)’ 라는 의미를 담아 <Re-meet & Limit> 이라 명명했다. [참고 도판 4]는 실제 전시 전경으로, 대화 맥락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자 이너뷰 대화록을 책의 형태로 엮어 초상화와 함께 전시한 것이다. 나는 초상과 텍스트가 1:1로 대응하던 기존의 방식에도 변화를 주고자 했는데, 레이저커팅으로 커팅한 합판을 이어 붙여 책장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대화에서 느낀 감정의 색을 덧입혔다.

나는 걸으로 드러난 인상(人相)만으로 파악되는 이미지를 절제하기 위해 무표정으로 눈을 감은 인물의 초상을 그렸다. [작품 16]은 완성된 인상 부분에 그리드를 덧입힌 것으로, 이를 통해 인터뷰이에 대한 감상자의 궁금증을 더욱 이끌어내고자 했다.



되게 단정하게 봤었고 그래서 눈을 뻔뻔~ 돌렸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전에 찍던 생활기록이 술에 취해서 찍었던 거고. 그리고 촬영을 했고, 촬영을 하고... 음, 그것도 있다. 그 사이에 생활기록도 기안 코드 종료. 하고 그 이후에 개인전시를 했고, 개인전시를 하고, 지금 또 다른 작업을 하면서, 또 팀사운드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 바쁜 한 해였다.

그렇게, 그리고 사실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유명한 작가가 되어야 할 수 없잖아, 아니면 정말 유명해진 인터뷰어도, 미술 한 가지에서 데뷔를 한다고 직감하는 게 그림이잖아, 미술관이나 미술관련 소시지에서 인터뷰를 하고, 내 작업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면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는 사실 기회가 좀 한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기 전에 어떻게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귀한 경험이었다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 내 배경 화면이 정리하고, 그래서 지금 사생활 계속 할 거고 그랬지 말 좀해, 딱딱하게, 그때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었어가지고.

- 생활기록이 없었다 했는데, 이제 일정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스스로 노면가까?

음!

- 너무 잘됐다.

사실 내가 원래도 정말 감정적인 타입은 아니잖아, 그래서 칭는 당시에도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힘들음 호소하고 학인 않았어. 그 때도 영에친 다 보이잖아, 애원도 별거 따르고, 그게 보이니까, 알 게 모르겠는데 그게 조금 뭐가 남았, 종고? 근데 지금은, 다음 뭐 좀 걸이 보인다고도 하고, 그냥 딱히 뭐~ 괜찮아졌다. 어느새 활동도 막 활동적으로 죽고싶고 학인 않았어요. 그게 당시가 충격적이었던 건 것이었지, 그냥 내면에 계속되는 우울감이 힘들었었으니까, 그리고, 너무 미래가 불투명한 것 같은 느낌.

11

대화록의 역할은 감상자들이 직접 책을 꺼내어 그 내용을 읽은 만큼 인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작품 17]은 [작품 12]의 E와의 대화록으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엔 사진이나 그림을 함께 넣었다.⁴¹⁾

E는 1년 전 가정 내에서 경험한 일에 대해 언급하며, 인터뷰에서 온전히 자신의 이야기를 발화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작품 17] Re-meet & Limit : E
Inner-view Script book, 22.5×13cm,
42page, 2021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으로 받아오던 심리 상담을 종료하고 많은 성취를 하며 극복해나가는 일상의 소식들을 알려주었다.⁴²⁾

대화록은 인터뷰이에 대한 경청의 기록이다. 녹음된 대화를 타이핑하고 책을 엮는 시간 동안에는 대화했던 시간 이상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된다. 나는 이처럼 애정 어린 시선과 노력으로 인터뷰를 하고자 했다.

41) [작품 17] 좌측의 사진은 인터뷰를 수집했던 장소인 E의 실제 방에서 촬영한 자료이다.
42) E와의 대화록 일부 인용 : “그 때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걸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 나도 내 얘길 하면서 정리하고, 그래서 뭔가 하게 되고 그랬지 않을까. 하하하하. 그때 상황을 잘 정리할 수 있었어가지고. ...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렇다면 충분히 의지적이라 느낀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상담사님도 느끼신 것 같아. “이제 종료해도 괜찮을 것 같다. 상담을.” 하셔서 나도 전혀 아무 그거 없이 “네, 저는 좋아요.” 이렇게 된 거지.”, pp.11-12

3) 회의와 희망

이너뷰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함께 호흡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2022년 전후로 코로나를 겪으며 대면 인터뷰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기에 처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너뷰어로서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의 공감이 형식적이지는 않았는가.’ 혹은 ‘그들로부터 더 두드러지는 상처들이 공개되길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 그래서 진정한 공감과 연대를 지향했던 순수한 동기를 되찾기 위해 ‘관계성’, ‘공동체’의 키워드와 연관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작품 18] Midsommar, 130.3×162.2cm, acrylic and watercolor on panel, 2022

[작품 18]은 그 과정에서 발견한 영화 《미드소마(Midsommar)》⁴³⁾의 주인공 대니가 영화의 주 무대인 ‘호르가’ 마을의 사람들 사이에서 오열하는 장면을 모티브로 그린 작품이다. 나는 의도적으로 화면 전체를 푸른 색조로 통일해 인물들의 슬픈 감정을 고조시켰다. 원작의 이 장면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얹혀 있는데, 본 영화의 평론에 담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드소마》에서 대니는 크게 두 번 목 놓아 우는데, 한 번은 가족들이 죽었을 때 그리고 나머지 한번은 애인의 배신을 목도했을 때다. 두 울음 모두 관계에 대한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 무너져 내리는 대니를 지켜보던 호르가의 여성들은 그와 똑같이 숨쉬고, 울부짖고, 고함친다. 이들이 대니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분명 한 사람의 감정에 동기화되어 함께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호르가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며 공감해준다는 측면에서 이상적인 공동체다.”(『Prism of』 제19호, p.82.)

개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호르가는 이상적인 공동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관람객들은 이 장면을 ‘기괴하다’ 고 느꼈다.⁴⁴⁾ 나는 이것이 연대의 이상을 위해 경청과 공감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보았다. 공감은 결과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진심으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너뷰를 통해 진심어린 소통을 이루고자 애쓰며 타인 그리고 사회와 함께 공명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바라게 된다.

43) 《미드소마(Midsommar)》 : 미국의 영화감독 아리 에스터(Ari Aster, 1986년 출생)가 제작해 2019년 7월 11일에 개봉된 러닝 타임 147분의 공포 영화. 극중에서는 스웨덴의 ‘호르가’라는 작은 공동체 마을에서 펼쳐지는 하지제 ‘미드소마(Midsommar)’를 배경으로 한다. 하지제는 ‘Midsummer’라고도 불리는 기간으로, 하지에 백야 현상이 나타나는 북유럽 외에 기독교적 기반이 있는 국가들도 기념한다. 스웨덴에서는 매년 6월 말에 미드소마의 날(Midsummer`s day)을 가진다. (『Prism of』, 제19호, 2021, pp.8-46.)

44) 프리즘오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인원 204명 중 29.4%(60명)가 ‘기괴하다’ 답했으며, 그 절반에 가까운 18.1%(37명)만이 ‘공감과 위로’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대, 유대’를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4.4%(9명)로 낮은 편에 속했다. (위의 책, p.101.)



[작품 19] 배산임수(背山臨水) : Fortunate Nexus, 130.3×162.2cm,
acrylic and oil on canvas, 2022

[작품 19]는 명당을 나타내는 ‘배산임수(背山臨水)⁴⁵⁾’에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비유하고자 한 것이다. 화면 속 인물들은 나와 3명의 이너뷰이들로,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함께 피크닉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돛자리에 누웠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연이어 서로의 몸에 기대 누웠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 각자의 몸이 마치 고리처럼 이어져 모두가 함께 연결된 큰 원을 이루게 되고, 자연스럽게 안쪽을 바라보게 되어 서로의 눈이 마주친다.

45) 배산임수(背山臨水) :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물을 내려다보는 지세(地勢)를 갖춘 터로서, 풍수에서 여기는 마을이나 건축물이 들어설 이상적인 지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1898>)

서로의 연결된 몸은 ‘배산(背山)’으로, 둘러싸인 내부의 공간은 ‘임수(臨水)’라고 볼 수 있다. 어원에 담긴 지리적 의미에 따르면 산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물은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공급원이다. 나는 인물의 외부와 내부의 색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현했는데 외부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들을 둘러싼 사회이고, 내부는 관계의 회복으로 이루어진 연대를 나타낸다.

본래의 의미대로라면 인물의 외부 공간은 부정적 의미에 가깝다. 그러나 나는 함께 연대를 이룬 개개인들에게 있어 사회는 더 이상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닌 어울림의 공동체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명도 높은 파스텔 톤의 색상들이 햇살처럼 퍼져있는 배경을 통해 희망적이고 밝은 사회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내부는 따사로운 햇빛이 비취졌을 때 윤슬이 가득 맺힌 푸른 강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다. 그 심연엔 개인의 아픔, 슬픔 등이 내재되어 있으나 함께 손을 맞잡고 있을 때 회복과 포용이 이루어지며 밝은 빛으로 덮이는 장면을 나타내고자 했다.

이때의 경험은 그동안 내가 지향해온 연대의 모습과 매우 닮아있었다. 연대(連帶)는 그 자체가 띠(帶, 띠 대)가 길게 이어진(連, 잇닿을 연, 련)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이다. 이너뷰의 지향점도 공동체와 연대를 향한다. 나는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만나 이루어지는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한 소통, 열린 마음을 통해 연결되는 내면적 교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정과 연대를 통해 마침내 하나를 이루는 것을 소망한다.

III. 결 론

본 논문은 2020년부터 제작되어 2022년 석사 청구전과 단체전에 전시된 작품들을 분석한 글로써 관계성에 기반한 인터뷰 초상화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에서 나는 대화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개인의 내면 이야기를 수집하고 공동체의 연대로 확장해나가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나는 2020년도에 잡지 화보 속 인터뷰를 읽은 뒤 타인의 삶에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인터뷰의 힘에 매료되었다. 그 영향을 받아 시작한 <Inner-view>는 ‘interview’가 가진 본래 의미에 ‘inner-’의 의미를 더한 것으로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고 그 내용에서 연상된 이미지를 작품에 투영시킨 인터뷰 초상화 프로젝트다.

본론에서는 이너뷰가 가진 다양한 역할을 통해 그 의의를 제시한다. 이너뷰는 개인의 내면을 면밀히 들여다보게 하는 마음의 창이다. 나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너뷰이와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럽게 깊은 상호작용과 교감을 가능케 했다. 경청의 결과로 내면의 사적인 비밀들을 공적인 열린 영역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이너뷰의 역할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하고 위로와 공감이 결여된 현대 사회를 비추는 시대의 거울로 확장된다. 개인이 가진 연약함과 고통은 현 시대의 사회 문제를 반영하므로 마르틴 루터의 주장처럼 그 구성원들이 함께 감싸 안아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된다. 나는 이너뷰를 통해 사람들의 아픔에 직접 다가서고 이들을 위한 공감과 포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자 했다.

이너뷰의 가장 큰 지향점은 연대의 접착점이자 공동체의 고리가 되는 것이다. 이너뷰어로서 나와 이너뷰이로서의 타인에서 출발한 작은 관계는 또

다른 타인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향해 점차 나아간다. 나는 예술을 통해 상호 인간관계를 만들고 단절된 개인 간의 유대감을 회복시키고자 했다.

나는 내가 느낀 인물의 비가시적 인상(印象)을 초상화 속 인상(人相)에 가시화하고 작품을 접한 감상자와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통 방식으로서의 조형언어를 활용했다.

이너뷰 과정에서 수집한 대화록 중 인물의 내면을 잘 반영한 문장을 선별한 뒤, 내용의 뉘앙스에 따라 잉킹 방법을 달리한 실크스크린 판화 기법으로 찍어내 문자와 언어 그 자체가 가진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색채를 통한 감정의 공유는 가장 즉각적인 인상을 전달한다. 나는 칸딘스키의 감각적 색채 이론에 영향을 받아 희로애락의 감정을 각각 상징적인 색상으로 나타냈다. 이를 통해 감정적 호소력을 높이고 나의 감상을 공유하고자 했다. 모자이크 그리드는 의도적으로 인물의 인상 위에 수직 수평의 직선과 색상 면을 얹어 대상이 특정되지 않도록 한다. 모호한 익명성의 자리로서 또 다른 누군가를 투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하고자 했다.

작품의 전개과정은 꾸준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발전한 조형 방법과 관점의 변화를 서술한다. 가장 먼저 진행한 이너뷰 프로젝트에서는 한 개인이 지닌 사연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그 이후에는 시간차를 두고 이너뷰의 성장을 기록하며 이너뷰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했다. 때로는 이너뷰어로서의 진정성과 실천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었으나, 연대의 소망을 잃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논문에서 다룬 경청, 공감, 연대의 가치관은 개인의 내면을 면밀히 알아보고 공동체 사이의 교집합을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되었으나, 그것이 상담 심리학과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도 동일한 실효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학문적 연계를 접목한다면 더욱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객관성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너뷰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여겨지길 꿈꾼다. 이너뷰에서 모델은 전통적인 미술사조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탈피하여 작가, 관객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작가로서의 나는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초상화로 표현하여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나누고자 했다. 작품을 통해 사회와 사람들을 엮는 바늘의 역할을 하고, 평범한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리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나와 관계성이 있는 커뮤니티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며 이너뷰이의 다양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더욱 두터운 공감대를 이루고자 전시 현장 관람객이 이너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작업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이너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내면의 깊은 고백과 눈물을 마주하며 다정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 이를 통해 이너뷰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온 외로움과 괴로움의 자리에 공동체의 사랑과 연대의식을 덧입힐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곽연선, 『번아웃 세대』, 스테이츠, 2022.
- 박동숙, 『질적 인터뷰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 파버 비렌(Faber Biren)저, 김진한 역, 『색채의 영향』, 시공사, 1996.
- 헤르만 헤세(Herman Hesse)저, 이순학 역, 『데미안』, 미르북컴퍼니, 2023.

2. 정기 간행물 & 학술지

- 『Prism of』, 제19호. 《Midsommar》, 2021.
- 가야금, 현주석. 「한글 글꼴의 세리프 및 네모틀 여부에 따른 친숙성과 선호도」, 『한국감성과학회』 제24호, 2021.
- 강화영, 「그리드시스템을 활용한 한글가구디자인의 구조적 특성」,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제41호, 2013.
- 김경애, 「파란색의 연상성과 SF 영화에서 미래지향적 스토리의 연계성」,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제45호, 2013.
- 김종기, 「니콜라 푸리오의 관계 미학과 관계 미술 - 이해와 비판을 위한 시도」, 『한국미학회』, 제81호, 2015.
- 박수경, 「조하리의 창(johari's window)에 나타난 통합체육 내 체육교사의 지적 장애학생 지도 어려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55호, 2016.
- 서혜옥, 「칸딘스키의 색채론 : 내적 필연성의 심리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제23호, 2009.
- 소나영, 장민한, 「동시대 ‘관계 예술’의 새로운 유형과 가치 - 니콜라 푸리오의

- ‘확장된 관계’ 개념을 중심으로」, 『유럽문화예술학회』, 제13호, 2022.
- 유형주, 김형기. 「미디어아트에서의 다양한 변형 초상 재해석을 통한 내적 본질 연구: 본인의 작품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제23호, 2023.
- 정훈동, 「조형언어적 타입의 공간적 이미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제9호, 2009.
- 조경민, 차영순. 「현대미술에서의 감성적 조형언어로서의 색채와 물질 연구」, 『한국감성과학회』, 제22호, 2019.
- 탁형수, 「시각적 의사소통을 위한 조형언어의 지도방안탐색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제25호, 2011.
- 한유나, 「위로의 연대 : 이미지로 보는 16세기 독일 루터파 공동체의 이상」, 『연세사학연구회 學林』 제49호, 2022.
- 현상규, 「경청에 대한 기독교심리학적 고찰」, 『목회와 상담』, 제18호, 2012.
- Luft J. and Ingham H., “The Johari Window: a graphic model for interpersonal relations (1955)”, University of California Western Training Lab.

3. 학위 논문

- 김수정, 「인물상을 중심으로 본 앨리스 닐(Alice Neel)의 휴머니스트적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 김예원, 「회화표현에 있어서의 오브제 활용방법이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정애, 「정서적 건강상태가 색채감정에 미치는 영향」, 가천의과학대학교 보건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4. 웹 사이트 & 디지털 아카이브

네이버 국어사전 ‘연대하다(連帶하다)’

<https://en.dict.naver.com/#/entry/enko/1f20c0d5eb19413ba5fb3fb425d996a5>

네이버 영어사전 ‘inner’

<https://en.dict.naver.com/#/entry/enko/0374970affd74e359d4932621bdb6e78>

네이버 영어사전 ‘inter-’

<https://en.dict.naver.com/#/entry/enko/1f20c0d5eb19413ba5fb3fb425d996a5>

네이버 영어사전 ‘view’

<https://en.dict.naver.com/#/entry/enko/0fe3e68d387342c9a9546420da456f13>

표준국어대사전, ‘인상(人相)’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72812&searchKeywordTo=3

표준국어대사전 ‘인상(印象)’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72973&searchKeywordTo=3

표준국어대사전 ‘인터뷰’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476485&searchKeywordTo=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배산임수(背山臨水)’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1898>

ABSTRACT

A Study of Interview Portraits Based on Horizontal Relationality

– Focused on my artwork –

Hyunyoung Ji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artistic methods of visualizing the inner self, focusing on the interview portrait project <Inner-view> created from 2020 to 2022. Grounded in relational interactions, I aimed to highlight the restoration of solidarity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e pivotal <Inner-view> project, at the heart of this paper, originated from the inspiration drawn from the powerful role of interviews mediating between authentic interviews featured in a 2020 magazine spread. Listening plays a crucial role in extracting natural and profound inner narratives from interviewees, addressing individual issues perceived by members of society, and fostering a connection that reflects the zeitgeist. Through this, the paper aims

to restore solidarity, creating a point of contact for the cyclical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In this paper, I showcase attempts to visually convey the impressions of unseen individuals using the language of art. Based on interview transcripts, I created silk screen prints, incorporating symbolic and evocative colors to reflect the inner emotions of the subjects. Additionally, through mosaic grids, I aimed to leave room for viewers to project their own interpretations.

The artistic analysis in this paper shares the inner stories of individuals who served as models for the interview portraits. To explore the tangible positive impact on personal growth, subsequent works featuring reunions with the same interview models were produced. The artwork depicting faces emphasizes the intention of hoping to bring positive influence to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hrough emotions of conflict and hope.

This paper asserts that the restoration and solidarity achieved through interview portraits hold value not only on an individual micro level but also extend to the macro dimension of societal communities. It proposes that <Inner-view> contributes to personal inner healing and the unity of communities, hoping to amalgamate aspirations toward both.